

地選 본격 레이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총력전

6·3 지방선거 D-12

통합시장 후보들, 표심 선점 경쟁 치열
거리유세·출근인사·출정식 세물이 돌입
광산을 후보들, 산단·생활권 민심 공략
민주·압승 vs 반민주 "1당독점 타파"

광주·전남지역 6·3 지방선거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일제히 거리로 나서 출정식과 유세를 이어가며 초반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2·3·4·5면

더불어민주당이 '원팀' 체제를 앞세워 압도적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조국혁신당·진보당·정의당·무소속 후보들은 민주당 중심의 1당 독점 정치 구도를 견제해야 한다며 맞불을 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이날 광주·전남 주요 거점을 돌며 첫 유세전을 벌였다.

민주당 민형배 후보는 이날 오전 6시 양동시장 상인들과 만난 뒤 양동사거리 출근길 유세를 펼치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어 지방선거 출정 기자회견을 열어 오일정신 계승과 지방선거 승리 의지를 강조했다.

민 후보는 북구청 교차로에서 열린 전남광주대 전환 선대위 광주본부 발대식에 참석한 뒤 남구백운광장, 서구 품금사거리, 광산구 수완지구 국민은행사거리 등을 순회하며 집중유세를 펼쳤다.



통합시장 후보들 거리 유세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광주·전남 지역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들이 거리 유세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국민의힘 이정현·진보당 이종욱·정의당 강은미·무소속 김광만 후보(기호순).



/조영권 기자·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북구청 환경미화원 인사와 현충탑 참배,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광주중정역 출근길 인사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광주권 세 걸침에 공을 들였다.

이후 나주와 목포, 순천, 여수, 광양, 구례, 곡성 등 전남권 중남 유세에 나서며 견제와 경쟁, 긴장이 있는 정치 구도 필요성을 역설했다.

진보당 이종욱 후보는 첫 일정으로 이날 오전 5시 북구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직원들과 만났다. 이후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출정식, 광주시 교육청 점심 인사, 5·18민주광장 전남광주시민추진도시 공동선언식 등의 일정을 이어갔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이날 새벽 목포 청소노

동자 인사를 시작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사거리와 서영암농협 본점 앞에서 출근길 시민들과 만났다. 목포 포르모사거리에서 열린 정의당 전남광주 출정식에 참석한 뒤 남약우체육사거리 유세를 이어갔으며, 오후엔 광주 5·18민주광장 시민추진도시 공동선언 기자회견과 신세계사거리 유세에 참석했다.

무소속 김광만 후보는 순천과 광양, 곡성 등 전남 동부권을 순회하며 비교적 차분한 유세 활동을 벌였다.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도 거리 유세와 정책 발표를 이어가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임문영 후보는 출근길 시민 인사를 시작

으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산구 주요 생활권과 산업단지에서 유권자와 접촉면을 확대했다.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앞에서 AI 첨단투자선도지구 선정 공약을 발표한 뒤, 신창동우체국 사거리에서 당원·지지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본선유세를 시작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후보는 서구 서광주로·금호로 일대 집중 유세에 이어, 광산구 신창동 우체국사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났다.

진보당 전주연 후보는 첨단대상파크골프장과 하남6리로 사거리, 신창IC 일대에서 출근 인사를 진행한 뒤 신창동 내 경로당 방문, 기아자동차 직원과 만남, 신창IC 퇴근길 인사, 지역구 편

의점 순회 등 지역 밀착형 유세를 벌였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광주글로벌보트스 노동자 출근길 인사와 함께 광주시의회에서 GG M지회와 정책협약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 관계 정상화 및 노동권 보장 방안을 제시했다.

무소속 구본기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열어 "오일정신으로 내란 원천 단죄의 새 역사를 광주에서부터 써내려가자"며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다.

한편, 지방·재보궐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이틀간 진행되며 본투표는 6월3일 실시된다.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6월2일 자정까지다. /변은진 기자

"5·18 北 개입설 등 악의적 가짜뉴스 강력 응징"

李대통령 "잘못된 역사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 일어나지 않는다" 강조
손배 청구 소멸시효 배제 입법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

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4·6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라며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전에 이미 한번 (관련 법안이) 통과된 바 있는데 전 정권에서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입법이 무산된 일이 있다는 점을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도 빠르게 정비해야 하며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에 대한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런 노력이 부족했기에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것"이

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수 기자

Today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규탄 확산 2·4·6면
정지효 작가의 남도투어 '해피버스테이' 9면
주간만화(웹툰) '볼셋! 국웅' 14면
※'부처님 오신날' 휴무 25일자 신문입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 투표로 만듭니다

자세한 선거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
에서 확인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위해 정책과 공약을 꼭 살펴보고 투표하세요

선거일 투표

일 시 | 6월 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장 소 | 지정된 투표소
* 거주지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전 투표

일 시 | 5월 29일(금)~5월 30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장 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지방선거 투표지 가이드

지방자치 단체장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 정선거	
지방의회 의원	시·도 의원선거 (지역구)	구·시·군 의원선거 (지역구)	시·도 의원선거 (비례대표)
지방 교육자치	교육감 선거	구·시·군 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선거 (비례대표)

*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보궐선거도 함께 실시

지방선거 투표 전 체크리스트

- 일정 확인하기
- 내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확인하기
- 신분증 챙기기
- 유의사항 확인하기

▶ 투표 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두 명 이상에게 기표 시 무효)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됩니다.
▶ 투표할 때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 사전투표를 한 후 선거일에 그 사실을 숨기고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 투표지를 찢는 등 훼손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